

# 추복



## 전설경

1

봄향은 눈을 뜨는 첫순간 약봉지며 약통들이 보이는데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여기가 어딜까?)

봄향은 기억력을 더듬으며 하나하나 되새겨보았다.

학생들의 자연공부에 필요한 동식물표본을 구하느라 물에 있는 본교에 나갔던 일이며 늦게야 섬으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 오던중 풍랑을 만나 가슴이 철렁해지던 일,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생각에 속을 바질바질 태우며 물을 퍼내던 일들은 떠올랐지만 그 다음일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분명 배전에 차오르던 물을 퍼냈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움쭉했다가 엄습해오는 아픔에 다시 누워버렸다. 온몸이 솟처럼 나른했다.

봄향이 가까스로 머리를 돌리니 턱을 고이고 졸고 있는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유정이 할머니였다.

《할머니!》

봄향은 반가와서 이렇게 불렀으나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맥이 빠져서인지 몸에서는 도무지 그 어떤 울림도 있는것 같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것이 눈에 익었다. 섬에 있는 종합진료소였다. 지금 방울방울 어떤 약물이 자기의 몸으로 흘러들고있었다.

《아이구, 선생님이 정신이 들었구만.》

그 어떤 인기척을 느꼈는지 유정이 할머니가 깨어나며 환성을 질렀다.

《애들이 이자 방금 왔다갔다우.》

유정이 할머니는 해질녘까지 선생님을 기다려 포구에 나와있던 아이들이 밤이 깊어 풍랑을 헤쳐온 배에 쓰러져있는 봄향을 보고 우리 선생님을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학부형들까지 다 나왔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봄향의 눈가에 맑은것이 고여올라 주르륵 눈귀로 흘러내렸다.

유정이 할머니가 손등으로 봄향의 눈언저리를 닦아주었다. 까실까실한감을 주는 유정이 할머니의 손이 닿는 순간 봄향이는 《후!》하고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봄향이가 여기 섬에 온 후 제일먼저 알게 되었고 또 그를 친딸처럼 사랑해주고있는 유정이 할머니였다.

《우리 애들때문에 이젠 그만 마음쓰라구... 선생님이 처녀의 몸으로 평양에서 예까지 와서 어느 하루인들 맘편히 잠을 잔적이라도 있나? 세찬 파도를 넘나들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워주려고 애쓰는걸 보면 이 늙은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게 한스럽기만 하다네.》

봄향은 그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사실 그동안 힘들 때마다 자기를 이겨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다해왔던가. 때로는 이겨내기가 힘들어 일기장에 별의별 불만을 다 터뜨린적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유정이 할머니가 자기의 심정을 터놓으니 그만 자기의 좁은 생각, 나약한 의지가 드러나는것만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해졌다.

봄향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외진 섬에 교원으로 자원진출한지도 벌써 5년이 되어온다.

이제는 익숙되어 아무렇지도 않지만 처음에는 파도소리가 귀에 설어 어떤 때에는 무서움을 안겨주었다. 그런 파도소리에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을 맞으면 부석부석해진 눈으로 학생들앞에 나설수 없어 거울앞에서 한참이나 얼굴을 다듬으며 애를 쓰던 일이 어제런듯 생생히 안겨온다.

바다바람은 얼마나 센지 얼굴이 트고 손이 터서 쓰리고 아프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봄향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관찰과 실습을 한번도 번진적이 없었다. 교편물 하나때문에 물에 다녀와야 하는 때면 정말 얼마나 마음을 조이며

순간순간 나약해지려는 자기와 싸워야 했던가.

《참, 들리는 말이 섬에 새 선생님이 온다던데… 선생님은 그걸 알고있나?》

봄향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유정이 할머니에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기쁘고 반가웠다. 자기가 여기로 오던 때가 생각났다. 혹시 대학을 졸업하고 자원진출하는 교원은 아닌지.

《새로 오는 선생님도 봄향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일거라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무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오는 선생님들인데 어련할라구.》

유정이 할머니의 이 말에 봄향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래, 우린 단순히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이나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여기 외진 섬으로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야. 새로 온다는 교원은 어떤 사람일가?)

점적이 끝나자 봄향은 안간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버릇처럼 머리를 손대듬으로 바로잡아나갔다.

《아이구, 왜 이러나? 좀더 치료를 해야 한다던데.》

《할머니,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찌나요? 난 일어나야 해요. 새 선생님도 온다는데 할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에이구… 내가 공연한 말을 한것 같구만. 난 선생님이 마음을 놓으라구 한 말이었는데 도리어 이러면 어찌나?》

유정이 할머니가 봄향의 손을 어루만지며 하는 말이였다.

창밖에서 끼르르거리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반갑게 들려왔다. 봄향은 마음이 설레이는것을 느꼈다.

《내 이거 언제부터 몰고싶었던 말인데… 달리 생각지 말구 내 말을 들어주시우. 도대체 그 총각은 어떻게 된 일이요?》

《그 총각이라니요?!》

봄향은 흠칫 놀라며 머리를 비다듬던 손을 멈추었다. 그는 유정이 할머니의 얼굴을 잠시 지켜보았다. 유정이 할머니의 눈가에는 그 어떤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그것을 감추려는 어줍은 웃음이 비껴있었다.

《언제인가 왔던 그 동창생이란 사람 말이외다.》

처녀에게 찾아온 총각을 보면 혹시 그들사이에 무슨 약속이라도 오간것이 없는가 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는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수 있었다.

봄향은 살며시 웃음을 지었다.

《에에, 그저 동창생으로서 여기에 와본거지요 뭐. 그때 그는 우리 섬을 돌아보며 계속 감탄만 하다가 갔어요. 참, 새로 오는 선생이 남자래요 여자래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어쨌든 나도 오늘부터 새로 온 선생이라고 생

각하고 생활을 더 잘해나가겠어요.》

봄향은 맹세를 다지듯 거침없이 이어대고는 침대 머리맡에 있던 고무에 물을 하나 가득 붓고는 한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었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자기를 이겨내기 위해 애를 쓰는 봄향을 보며 유정이 할머니는 혀를 끝끝 찼다.

《에구, 그만 이악을 부리오.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의 마음은 내가 더 잘 알고있다네.》

《할머니, 전 정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따르는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스스로 묻곤 해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하나 학생들을 위해 사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싶어요.》

《원, 쯤쯤…》

## 2

봄향은 유정이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니 아픔이 어느 정도 가셔진것 같았다.

그는 어제밤 물에서 가져온 교편물들도 보고싶었고 학생들도 만나보고싶었다. 한시라도, 하루라도 못보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보고싶은 학생들이다.

봄향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바다바람이 불어와 장난꾸러기처럼 봄향의 머리카락을 자꾸 흐트러뜨린다. 손으로 비다듬으면 또 흐트러뜨리고… 봄향은 푸른 하늘과 푸른 물결이 하나로 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기었다.

옆에서 부축하며 오는 유정이 할머니의 말이 귀전에 울린다.

《그렇게 새물새물 웃으며 고집을 쓰니 성도 못내겠구만. 다른 사람들처럼 반박이라도 하면 실컷 욕이라도 하겠는데 이젠 그저 웃기만 하니.》

순간 봄향은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그렇게 말하던 한사람의 다정한 목소리가 문득 생각히워서였다.

《봄향동무, 계속 그렇게 웃지 말라구. 그래 어찌자는거요? 속을 좀 태우라는거요?》

그러면서 안타까운듯 제 손바닥만 뿡뿡 내려치던 사람!

한주성, 그를 본지도 이젠 퍼그나 오래다.

봄향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분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벌써 분교의 창문이 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번듯하게 꾸려진 분교였다.

섬에 왔던 주성이 분교를 돌아보며 하던 말이 또렷이 새겨진다.

《정말 멋있구만! 나도 이런 곳에서 수업을 해보았으면… 동무가 부럽구만.》

이때 학교에서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유정이 할머니와 헤어진 봄향은 걸음을 다그쳤다.

《선생님!》

학생들이 어푸러질듯 달려와 봄향을 에워쌌다.

봄향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꼭 껴안았다.

《선생님,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만은 좀 쉬십시오.》

학급장 철범이의 말에 학생들모두가 호응하였다.

《선생님은 일없어요. 어서 들어가 수업을 하세요.》

그러자 학생들은 너무 좋아 꺽충거리며 열이 떨어지지 않아 화끈화끈 달아오른 봄향의 손을 꼭 잡고 교실로 들어갔다.

봄향의 눈가에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아픔이 사라졌다. 이렇게 정든 학생들, 이렇게 사랑스러운 제자들과 단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떨어져 살수 있던 말인가.

분교에는 분교장인 봄향과 섬에서 사는 군관의 아내인 선희선생님이였다. 교원이 두명이였지만 그들은 단 하루도 수업을 미루거나 못한적이 없었다.

학생들의 나이가 각각이고 학년도 다르지만 그들은 합리적인 교수방법을 찾아 늘 머리를 쓰고 분초를 아끼며 애를 썼다.

오늘도 그것을 알기에 봄향은 앓는 몸이지만 분교로 온것이다.

선희선생이 대신하러던 고급반학생들의 문학시간에 들어간 봄향은 수업을 시작하였다.

《오늘은 서정시 〈나의 조국〉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교과서를 펼치는 소리가 잦아들자 봄향의 목소리만이 교실에 짙 차서 울렸다.

《이 시는 시인 김상오선생이 창작한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이 시를 한번 읊었으니 동무들은 시를 들으면서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봄향은 담담한 목소리로 운률에 담아 시를 읊기 시작했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라  
...

시를 읊어가느라니 눈앞에는 대학시절의 일들이 어제일처럼 생생히 떠올랐다.

한주성을 알게 된것도 바로 이 시때문이었다.

주성은 봄향이와 함께 대학에서 진행하는 태양절 경축 예술공연에 참가하여 서정시 《나의 조국》을 읊었는데 얼마나 멋지게 읊었는지 온 대학의 절찬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술공연때마다 한조가 되어 시를 읊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인차 가까와졌다.

주성은 자기의 약한 외국어학습을 봄향에게서 도움받았고 봄향은 그에게서 창작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날 봄향은 주성이에게서 아픈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리 시대 청춘들의 리상은 어떤것이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쓰기로 하였는데 봄향이

는 끝내 그 글을 내놓지 못했던것이다.

누구에게나 리상이 없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봄향에게도 하늘을 찌를듯 한 높은 리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리상을 곁에 드러내자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동무도 과제를 못할 때가 다 있구만.》

자존심이 강한 봄향에게는 그의 이 한마디가 채찍처럼 느껴졌다.

봄향은 얼굴만 붉힐뿐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가방속에는 밤새 쓴 글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뜻 내놓지 않았다. 아니, 내놓을수가 없었다.

그날 아침 당보를 보는 순간 자기의 리상이라고 하는것이 얼마나 리기적이고 협소한것인가를 깨달았던것이다. 신문에는 어느 한 건설장에서 인민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을 마친 평범한 폭발물구조대원의 소행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었다.

누가 보건말건 당과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나간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결코 리상이 낮아서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청춘을 바치고 발전소언제에서 자기들이 설자리를 찾았겠는가?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가는 그들의 리상에 비해볼 때 나의 리상이란 기껏해야 조건이 다 갖추어진 교단이였으니... 봄향은 졸업할 때까지 리상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찾아주신 최전연섬분교로 갈 자기의 리상을 마침내 정한것이였다.

지금도 봄향은 때없이 자기에게 물어보곤 한다.

《우리 시대 청춘들의 리상은 어떤것이여야 하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봄향은 다시금 자신을 다잡고 학생들에게 서정시 《나의 조국》에 깃든 깊은 뜻을 설명해주기 시작하였다.

사실 그는 이 수업을 위해 많은 품을 들였었다.

섬에서 살고있는 아이들에게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이며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등을 알려주기 위해 봄향은 많은 사색을 기울였다. 그는 룻화자료와 사진들을 찾아 물에 있는 도서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동무들에게 편지도 띄웠다. 그렇게 준비한 교편물들을 지금 리용하면서도 머리속으로는 또 다른 환상을 펼쳤다. 우리 섬 어느곳에 가면 아이들에게 시에서 나오는 장소와 환경들을 더 생동하게 인식시킬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가 안고있는 조국이란 곧 수령님의 품이라는 종자를 스스로 알게 할수 있을까.

수업에 심취된 학생들의 눈은 별처럼 빛을 뿜고 있었다. 봄향은 그들의 마음속에 조국을 새겨주고 싶었다.

《동무들도 보았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멀고먼 최전연의 이 외진 섬을 찾으시였을 때 어찌서 우리 병사들과 섬마을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는지... 떠나실 때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서며 차디찬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는데 입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조국의 품이라는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그 품을 목숨바쳐 지킬 맹세로 심장을 불태웠기때문입니다.»

봄향은 격정을 금할수 없어 잠시 말을 끊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끝내 학생들에게 보이고야말았다.

학생들도 울었다.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나 해빛처럼 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모두들 울었다.

《학생동무들, 우리 배움의 한순간, 한순간이 조국의 태일을 빛내이는 귀중한 시간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나갑시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

아이들의 대답소리는 우렁찼다.

봄향은 온몸에 새힘이 솟는것을 느꼈다.

《그럼 오늘수업은 이것으로 끝나치겠습니다.》

봄향이 교원실에 돌아오니 선희선생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오늘 오후에 새 선생이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봄향은 반갑고 기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교원이 한명 늘어나는것이 물에서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겠지만 섬에서는 달랐다.

새 선생이 온다는것은 친형제가 온다는것만치나 반가운 일이었다. 아니,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수 없는 경사였다. 어떻게 보면 이곳 섬방어대 군관의 안해인 선희에게는 친동생이 하나 생기는 일이라고도 할수 있고 처녀인 봄향에게는 마음을 놓고 시집도 가고 생활도 꾸러나갈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는 고맙고도 귀중한 동지적인 방조를 의미하기도 했다.

《분교장선생, 무슨 생각을 그리해요? 배가 들어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서 나가보지요.》

《그래, 나가자요. 학생들도 다 데리고 나가는게 어때요?》

《그러자요!》

### 3

마중나온 사람들로 봄비는 포구에는 자주색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선희와 흰저고리에 까만치마를 받쳐입은 봄향이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친자매간처럼 생김새도 엇비슷했다. 선희는 늘 봄향이 분교장이라고 깃듯이 레의를 차려 말했다. 그러다나니 사람들은 봄향을 언니로 알고있었다. 그러거나말거나 둘이 있을 때에는 봄향은 늘 선희를 언니로 대해주었다. 사실이 그러했다. 나이도 나이거니와 생활에서도 그가 앞선 경험자였다.

오늘도 선희는 마치 심문을 들이대기라도 하는듯 배를 기다리는 시간에 봄향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난 암만해도 모르겠어. 분교장선생의 그 기러기 말이예요. 어쩌면 그렇게 왔다가 훌쩍 날아갈수가 있어? 사랑이란 그렇게 문득 시작되고 문득 끝나는 그런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아이, 기러기 또 뭐구 사랑은 또 뭐예요? 우린 정말 아무런 약속도 한적이 없는 사이란 말이예요.》

《정말 그렇다면 분교장선생의 얼굴은 왜 빨개지는거예요?》

선희는 방긋 웃었다.

《아이참!》

봄향은 선희의 말에 어떻게 반박할지 몰라 찢절됐다.

그러나 그것이 통답이든 진답이든 싫지 않았다. 아무리 잊려고 애써도 문득문득 떠올라서는 사라지지 않는 주성의 모습이였다.

《분교장선생, 누가 모르는줄 아세요? 어서 이실직고해요.》

계속되는 선희의 공격에 봄향은 정색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 동문 우리 섬에 깃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을 혼자 조용히 밟아보았을뿐인걸요. 아마 자기가 키우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섬에서 본 모든것을 깊이 새겨주고싶었을거예요.》

《그렇게도 다른 말을 한게 없어요?》

봄향은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때의 주성의 모습이 다시금 뇌리에 떠올랐다. …그날 수업을 끝내고 분교를 나서던 봄향은 멀리에서 걸어오는 청년의 모습에 눈길이 끌려 한참이나 바라보았었다.

어디서 보았던가?

봄향은 자기를 바라보는 청년의 웃음진 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마나, 주성동무.》

봄향은 뛰어갔다.

《봄향동무, 잘있었소?》

주성은 봄향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떻게 된 일이예요? 여길 다 오다니… 너무도 변해서 막 몰라보겠군요.》

봄향은 스스럼없이 말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정은 감출수 없었다.

《난 첫눈에 알아봤는데 동무는 어쩌면 그럴수있소?》

《아이참, 너무 달라졌으니…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왔다는걸 잊은 모양이구만.》

《참, 그렇군요.》

봄향은 자기의 실수를 깨달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주성에게서 한फल 먼저 먹은셈이다.

봄향은 졸업식장에서 주성이 하던 말을 되새겨보았다.

《봄향동무, 난 동무가 섬분교로 가기로 자원했을 때 처음엔 머리가 좀 멍했었어. 하지만 다음순간 동무의 가슴속에서 타버지는것이 무엇인가를 알

있어.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려는 청춘의 그 아름다운 리상을 동무는 글쭙로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나에게 말해주었어. 동무는 그때 하지 못한 글짓기 과제를 실천으로 보여주었거든. 난 이제라도 동무에게 5점을 매기고싶소.»

졸업식이 끝난 후 그들은 차넘치는 걱정을 누를 길 없어 물결이 출렁이는 대동강변을 걸었다.

그 강변에서 봄향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성동무, 우리들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 동무는 군사복무를 잘하고 난 섬마을 학생들을 잘 배워주어 우리 후날에도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요.»

주성은 봄향의 말에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지긋게 바라보았다.

《봄향동무, 난 이 자리에서 다른 말은 하고싶지 않아. 그러니 군사복무를 마치면 봄향동무를 찾아가겠어. 그때… 모든걸 말하고싶어.»

그후 주성이를 다시 만난것은 봄향이 교편물때문에 평양에 갔을 때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평양역에 그가 나와있었던것이다.

봄향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속에서 주성과와 상봉하였다.

《봄향동무!》

《주성동무!》

그들은 오랜 세월이 가져다준 서먹함을 가시려고 극장에도 갔고 유흥장에도 갔다. 다시금 대학시절로 돌아간듯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봄향은 섬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주성은 자기의 군사복무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무엇을 할 결심인가요?》

《난 이미 결심했소. 동무처럼 나라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칠 결심이요.»

봄향은 확고한 결심이 어린 주성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후대들에게 자기의 꿈과 리상을 다 바치려는 그가 돌보았다. …

《무슨 생각을 하오? 내가 온게 반갑지 않은 모양이구만.》 하는 주성의 말에 봄향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아니, 아니예요. 자, 어서 가지자요.》

주성은 그러는 봄향을 따라서며 말을 이었다.

《난 늘 텔레비전에서 섬마을이 나올 때면 봄향동무를 보는것만 같았소. 그래서 이렇게 휴가를 받고 찾아왔지.》

주성은 봄향이의 안내를 받으며 섬분교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동무가 부럽구만.》

주성은 돌아갈 때 배에 올라 이런 말을 하였다.

그후 그에게서는 편지 한장, 전화 한통도 없었다. 봄향은 좀 섭섭했으나 학생들때문에 시간이 없으리라 이해하고 오늘까지 흘려왔던것이다.

봄향은 아직도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선희에게 진심을 이야기하였다.

《선희선생, 난 주성동무가 나에게 말없이 요구성을 높여주었다고 봐요. 교원의 하루생활은 학생들을 위해 몸도 마음도 다 바치는게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을 훌륭한 앞날의 기둥감들로 키우는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나요?》

선희의 눈에 아쉬움과 서운함이 어리었다.

《하지만 분교장선생은 너무해요. 어쩌면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한마디도 비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원이라고 해서 가정생활이 없어야 한다는것은 아니겠지요? 난 옆에서 보기가 정말 괴로워요.》

봄향은 불쑥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 저기 배가 와요.》

그들은 포구로 향한 배에 눈길을 보냈다.

붕!— 배는 길게 고동소리를 울리며 천천히 들어서더니 닻을 내렸다.

봄향은 배전을 바라보았다. 갈매기와도 같은 흰 저고리고름을 날리는 단발머리 처녀선생이 배전에 나와있을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제깎깎양복차림에 붉은색무늬가 새겨진 넥타이를 맨 청년이 보였다.

《아니, 분교장선생, 그때 왔던 주성동무예요.》 선희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봄향의 손을 흔들었다.

봄향은 너무 놀라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그랬다. 그는 주성이였다.

주성이 배에서 내리자 마중나온 사람들과 학생들이 박수로 열렬히 맞아주었다. 그러면서도 봄향이 보이지 않아 서로 마주보며 《분교장선생님!》 하고 찾았다.

《왜 이려고있어요? 빨리 나가지 않고.》

선희의 손에 떠밀리워 봄향은 앞으로 나섰다.

《봄향동무!》

《주성동무!》

그들은 굳게 손을 잡았다. 신뢰와 열정에 그들의 눈동자속에서는 불길이 이글거리고있었다.

《난 동무와 함께 이 교단에 서고싶어 왔소.》

《고마와요.》

봄향은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주성은 그러는 봄향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실 대학시절에 청춘의 리상에 대해 글을 쓰라고 할 때 나도 그 제목으로 글을 써놓았었소. 그런데 차마 동무에게 보일수가 없었소. 내 이제 들어가면 보여주지. 그 글에 오늘은 동무가 점수를 매겨주요.》

《아이, 난 보지 않고 5점을 매기겠어요.》

봄향의 청고운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가로 높이 울려 퍼졌다.

《에이구, 그런것두 모르구 우린 옆에서 걱정만 했구만. 아무렴, 우리 원수님께서 키우신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구!》

유정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며 박수를 치자 모두가 다시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축복의 박수소리는 오래오래 울려 퍼졌다.